

십자가의 도 (고린도전서 1:18-25)

십자가에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도, 하나면 모든 것 다 된다. 인생 모든 문제 해결이다. 언약의 피 하나 아는데, 인생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나? 그 언약으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깨겠다 그것이 약속이다.

내 약속의 피로 모든 원죄와 사단의 머리를 깨겠다는 것이 약속이다. 그러면 끝난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하셨다. 뭐를 다 이루셨는가? 니가 저주에서 나오는 길을 다 이루었다는 것이다. 너의 문제를 다 박살내고 정복하는 길을 다 이루었다. 이제 절대 사단의 저주가 너의 인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길을 완성했다는 것이다. 그냥 빌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박살내고 정복하는 것이다. 내가 그 약속을 다 완성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이다. 십자가에서 가르치셨다. 그러면 잡아야 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하신다. 이 말씀의 핵심, 그리고 모든 것을 모은 것이 십자가이다. 말씀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말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으로 하시고 말씀대로 하신다는 것이다.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 이렇게 하는 신은 없다. 어느 신이 먼저 말을 하고 그것을 계속 성취하겠나?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씀을 잘 봐야 한다. 그 말씀 잡고 고백해야 한다. 잘 안들어오기 때문에 지속해야 한다. 그리고 결국 이뤄야한다. 그러면 뱀의 머리가 박살 난다. 원죄 때문에 일어난 모든 저주에서 해방된다. 해방을 지속하면 정복이 나타난다. 어느날 보면 그것이 작품이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인생이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가르친 것이다. 다시 한번 언약이 되기 바란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방법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방법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의 방법이 되어 버려야 한다. 그러면 인생중에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기적이 일어난다. 이것 안해서 그렇다고 보면 된다. 지속되어지면 정복자의 축복이 나타난다. 지난주에 본 엘리사는 그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있었다. 육체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 아니었고, 큰 무기도 없었다. 단지 말씀을 따라갔고 그 시대를 정복했다. 당대의 모든 일을 엘리사 중심으로 했다. 말씀을 받는 자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나라와 시대를 구하는 많은 증거를 보았다. 그 시대를 정복한 사람은 엘리사지 왕이 아니다. 이스라엘 왕은 말할 것도 없고 큰 나라의 왕도 아니다. 정복자는 엘리사였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고 그런 작품을 만드는 것이다. 원리를 따져보면 너무나 간단하다. 엘리사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나도 잡고 기도하는 것이다. 언제 될 것인가를 나는 모른다. 하나님의 때에 되는 것이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방향과 내용은 확실하다. 때는 하나님의 소원 안에 있다. 그러나 나는 잡았다. 내용을 잡았다. 하나님의 이유를 잡았다. 방법도 그 안에 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다. 이것이 우리가 삶을 사는 방식이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는가? 인생을 정복하고, 문제를 정복하고, 시대를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근본되는 복음을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시대를 두고 주시는 말씀들이 있다. 미국, 남미, 렘넌트, 다민족이다. 언약이 되어진 사람은 남미 끝까지의 응답과 정복을 누릴 것이다. 먼저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 들어간 말씀은 먼저 말씀하셨다는 것이다.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그 말씀을 성취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방법이다. 모세에게 그렇게 했고, 사도바울에게 그렇게 했고, 엘리사에게도 똑같이 하셨다.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잡아야 하고 안 잡히면 기도해야 한다. 근본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와 이 시대를 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잡는 것이다. 이것을 지속하면, 잘 안되어질때도 있지만 반복하면 결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그 입에서 그렇지, 우리는 미국의 역사를 뒤집는 것이다 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그냥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고, 될지 안될지 모르고 아무도 인정안할수도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그것이 아닌 것이다. 뒤집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본문의 말씀처럼 바보같이 미련해 보인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바보와 일했다. 잊어버리면 안된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와야 한다. 때로는 내 마음대로 안될때도 있다. 그것이 또 다른 축복이다. 그 때 되어지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으니까. 오늘도 우리는 중요한 말씀을 받는 날이다. 예배드리고 기도

하고 찬송하고 헌금드리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나 받은 말씀이 없다면 허무하고 공허해진다. 중요한 말씀을 받기 바란다. 은혜도 받고 치유도 되기 바란다. 감사도 되고 응답도 되기 바란다. 그런 중에 내 마음에 항상 중심에 잡을 것은 오늘도 나에게 말씀 한마디를 주세요이다. 이 말씀 한마디에 인생이 역전된 사람은 성경에 수없이 많다. 모세는 그냥 장인어른의 양을 보는 사람이었지만 어느날 말씀 들어오니 시대적인 인물이 되었다. 사도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는 중에 그리스도를 만나서 진짜로 시대를 바꾼 인물이 되었다. 세계사에 역사를 뒤집은 중심에 사도바울이 있었다. 로마의 황제가 아니었다. 문화를 새로 하나를 만들었다. 그리스도의 문화, 십자가의 보혈의 문화이다. 우리는 이런 인생 살아야 한다. 우리중에도 많이 있다. 나도 그 증인중 하나이다. 내가 만일 그 말씀을 안 받았다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사람들은 복음으로 사는 나를 바보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 속으면 안된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개인의 말씀을 따라서 내 인생을 만든다. 평생에 말씀이 들어오고 평생을 두고 지속하는 축복의 날이 되기 바란다.

1. 십자가의 도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다. 귀중하고 유명한 말씀이다. 구원의 은혜가 없는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구원의 은혜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원죄를 모른다. 그러니 십자가가 필요가 없다. 원죄를 모른다는 것은 아예 인간 자체가 출발이 안된 것이다. 공중에 뜬 소리 하면서 돌아다니는 것이다. 인생 사는것도 의미가 없다. 뿌리도 없고. 우리가 그리스도에 선명하게 눈이 열리는 것은 원죄를 알고 난 후부터이다. 그리스도 단어는 알았지만 선명하지 않았다. 왜냐면 원죄와 사단을 몰라서. 그래서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니까, 성경을 교육, 인본주의로 해석하는 것이다.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이 운명과 저주에서 못 나온다. 이것이 원죄이다. 이 눈이 없는데 왜 그리스도가 눈에 들어오겠는가? 미련하게 보인다. 바보처럼. 예수 믿으면 바보다. 당연히 그의 죽음과 그 언약의 피에 원죄의 저주를 해결하는 길이 있다는 것이 바보처럼 들릴 것이다. 이 눈이 없는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 이 눈이 열리지 않는다. 저주와 운명에 대한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도 은혜가 없으면 원죄가 안 들어온다. 작년에도 학교에서 총 쏘서 아이들이 많이 죽었을 것이다. 전부 정신병이다. 왜 자기도 쏘서 죽는가?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도 사단이라는 생각이 안들어간다. 눈이 없는 것이다. 옛날에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도 비슷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사단, 귀신 이런 단어를 알고 나서 보니, 내 주위에 진짜 귀신 들린 사람 한 다섯명 이상 있었는데, 나는 한번도 이들이 귀신들렸다는 생각을 한번도 안했다. 나는 그때 잘난 인간이었다. 짐사라도 나는 성경 자신있다고 생각하는 인간이었다. 실제로 전도사님들하고 토론을 하면, 내 입으로 말은 안했지만, 저래서 되겠나 하고 생각하는 인간이었다. 지판에는 성경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는 인간이었다. 그런데 귀신 들린 것은 몰랐었다. 그런데 성경은 영적 책이다. 사단이 원인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귀신을 모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답이 안되는 것이다. 그러니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된다. 그래서 결국 기도 안한다고 선언까지 했었다. 응답도 안되는데, 왜 기도하냐고 하였다. 1년 후에 복음 들었다. 하나님 죄송하다고 회개했다. 모르는 것이다. 눈이 없다. 말씀 들어야 한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니다. 세밀하게 들어야 한다. 그냥 듣는게 아니라 적어야 한다. 그래야 내게 들어와서 언약이 된다. 언약이 되어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지식이다. 지식으로는 사단이 안 죽는다. 언약이 되어서 영적인 힘으로 전쟁 붙어야 한다. 그래야 답 난다. 그래야 정복 온다. 언제 올지는 모른다. 그러나 온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는 것이다. 십자가의 도, 중요한 단어이다. 내가 십자가에 피흘려 죽으면서 한 말을 기억하라. 안 그러면 죽게 된다는 것이다. 이 눈이 없으면 사단이나 원죄가 안들어오는 것이다. 21절에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수가 없다고 하였다. 인간이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은혜 없이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이 영안을 스스로는 절대 열지를 못하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눈이 열리게 하신 그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눈

안 뜨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된다. 절대로 원하지 않는데 눈이 열려 버렸다. 원하지 않는데, 받아들여지게 된다. 그래서 이 은혜를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은혜가 임하면 구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해도 안된다. 그러면 미련해 보이고 안된다. 시간 낭비같이 보인다. 그런데 이 은혜가 창세전에 결정되었다는 것이다. 24절에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는 것이다. 한정해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이 은혜가 들어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불러주셔야 되는 것이다. 눈에 안보이기 때문에 내가 믿었다고 생각한다. 절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운명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 분의 결정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이다.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거꾸로 근본적으로 말하면 원죄와 사단의 운명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능력은 사단의 머리를 깨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놀랍다.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들리면 아직 사단에 대한 눈이 안 열렸다는 말이다. 이 십자가, 그 약속의 피가 원죄의 저주를 깨는 것이다. 모든 문제의 머리를 깎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문제에 잡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문제는 수 없이 계속 오겠지만 모든 문제를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할수 있겠냐? 할수 있다는 것이 십자가의 도이다. 너는 할수 있다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가르쳤다. 그리고 그 답이 내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으로 전쟁 불으면 반드시 이긴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놀라운 능력이 십자가의 보혈, 내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다. 간단한 것 같은데, 여기에 세상의 모든 지혜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다. 이것을 깨닫는 자는 세상을 알 것도 없다. 세상을 해결하고 정복하면 되지 알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 꼭 다 알아야 정복하는가? 아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언약으로 잡아야 한다. 이것이 마음에 들어오는 축복이 있기 바란다. 듣는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고 안다고 되는게 아니다.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야 한다. 그걸 언약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메시지를 세밀하게 듣고, 중요한 단어를 잡아야 한다. 그리고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였다. 그러면 되어지는 것이다. 때가 오는 것이다. 답이다. 이것이. 이것이 답이고 이것 말고는 답 없다는 것이 바로 오직 예수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이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가?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아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유일하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약속되어 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지혜이다. 이 지혜 하나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알아도 이것 모르면 바보이고 미련한 것이다. 지옥을 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뱀의 머리를 깨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원죄의 모든저주를 깨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저주에서 해방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먼저 할 것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다. 이것을 알고 믿고 누리는 것이다. 잘 안되기 때문에 계속 고백을 하는 것이다. 계속 쓰는 것이다. 이런 발버둥을 24시간 해도 좋은 것이다. 세상에 할 일 많지만 그리스도를 누리는 이 일을 가장 먼저 해야 한다. 안그러면 옆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기가 찬 것은 그 옆길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스도 안되면 우리 인생의 근본을 터치 못한다. 인생 문제의 근본이 무엇인가? 사단이고, 원죄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근본을 터치 못한다. 방법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하나 뿐이다. 계속 고백하고 선포하면 된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미련하게 보인다. 하나님은 그것 뿐이라고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되기 바란다. 그리스도 깊이 누리고 해방되기 바란다. 조그마한 해방이 지속되면 문제 있어도 상관없다. 정복이 들어온다. 지속하면 하나님이 작품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이다. 축복이 있기 바란다.

2. 전도자

전도자는 너무나 중요하다. 하나님 눈에는 이 사람보다 중요한 사람

이 없다. 전도자는 세상 살리는 답을 가진 사람이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다. 전도는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이었다. 모세, 엘리사를 통한 전도도 마찬가지였다. 엘리사는 가만히 앉아서 아람 전체에 전도했다. 요셉도, 다니엘도 그랬다. 시대적인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갔다. 우리는 시대적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놀라운 계획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잘 듣고 언약으로 잡아야 한다. 그리고 내 인생을 영적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언약으로 잡아야 한다. 성경에 모든 인물들이 다 그랬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내 영적 능력이고 누림이고 기도이다.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누구인가를 언약으로 잡아야 한다. 발견이 안된 사람은 질문을 하나님께 계속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답을 주신다. 이 답을 받으면 평생의 언약이 된다. 그리고 그 인생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살아가게 되어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때를 따라 전도의 문을 여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21절에 보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이다. 세상은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다. 연구한다고 무슨 결과가 나오는 분이 아니다. 믿을 때 아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셨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다. 세상은 아무리 해도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실 때에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 눈을 전달하는 것이 전도이다. 그래서 그들은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구원하신다.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면 전도를 귀하게 볼 리가 없다. 그러나 이 미련한 전도자가 세상을 살리는 것이다. 세상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전도이다. 따라서 전도자가 중요하다. 언약을 가진 사람이 선지자라고 하였다. 창세기 20장 7절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였다. 왕이 자기 아내 삼으려고 해서. 그런데 그 날 저녁에 나타나서 한 말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하였다. 이유는 하나이다. 그는 언약하지만 언약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이 언약을 세상과 후대에 전달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왕에게 그는 선지자라고 하였다. 그는 겉으로는 선지자 역할 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는 언약을 가진 사람이었고 후대에 전달할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우리는 예사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이 일과 이 일을 할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가 전도를 예사로 생각하는 이유는, 원죄의 저주를 예사로 생각해서 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심각하게 생각한다.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정도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신다. 우리는 옛날에 모를 때 뿐 아니라 알고 난 후에도 그냥 넘어가버린다. 이것을 내가 심각하고 이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면 모든 일어나는 문제 바탕에 원죄를 깔 것이다. 그런데 모든 것을 원죄로 생각하는 사람이 드물다 보니 그리스도가 안 나오는 것이다. 원죄의 원인을 사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영적인 능력으로 누릴 것이다. 우리가 이 눈을 떠야 한다. 그러면 내 인생이 명확해진다. 과거의 모든 문제들이 원죄요, 사단이고. 확실하게 답 나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스도를 진짜 언약으로 잡게 된다. 그런데도 안 잡히면 생명결고 기도할 것이다. 원인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답에도 아주 선명해질 것이다. 나는 미래를 어떻게 살것이라는 답이 선명해질 것이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흘려 가르쳐준 것이 이것이다. 그러면 답이 난것이고,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 전도이다. 그래서 전도자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이 전도자의 인생을 순례자라고 한다. 이것을 위하여 언약을 잡았다면 남은자이다. 이렇게 하면 결과가 반드시 온다. 그것을 정복자라고 한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이 놀라운 은혜 안에서 시대적인 복음을 받았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 있는 사람들이다. 많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그 계획의 중심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엘리사가 그 중심에 있었다.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바란다. 정말로 엘리사와 같이 사는 것이다. 진짜 인생 정복하는 은혜가 있기 바란다.